

코스피	코스닥
2548.86 (+2.56)	719.41 (-10.28)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316 (+0.011)	1443.55 (+7.05)



행정력·위기관리·정권교체열망... ‘구대명’ 만들었다

〈지지율 90% 육박〉

이재명, 압도적 지지 비결은

계엄해제 리더십에 민주진영 결집
내란 극복·경제 회복 기대감 높여
성남·경기지사 정책 실행력 부각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당내에 ‘계파가 없는’ 정치인이었다. 특정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이 후보는 당권을 장악하고, 이제是大권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총 득표율 89.77%를 얻으면서 본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50.29%의 득표율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 4년 전에 비해 득표율이 대폭 오른 것이다.

계다가 이같은 득표율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세론을 굳혔고, 이재명 후보 역시 계엄 정국을 통해 민주진영의 ‘리더’로 인정받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4년 전 50%에서 현재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계엄 당일 보여준 이 후보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여의도 국회로 나와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 덕에 계엄해제결의안

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개인 비리, 사인(私人)의 국정농단 등이 사유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헌문란이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회복, 내란 극복이 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것으로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 후보를 향한 압도적 지지의 일등공신은 윤 전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가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비결은 당내의 ‘내란 극복·정권교체’ 열망뿐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보편적 복지 사업을 펼치며 주목을 끌었다. 경기지사를 역임할 때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그간 민주당에서 제시한 복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생활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강력한 행정집행’도 화제였다. 2020년 코로나19 전염이 극심하던 당시,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방역 목적의 강제 조사를 실시하는 모습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당시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직접 채취하겠다는 신천지 연수원으로 향한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기도 계곡 불법 영업 정비 역시 강력한 행정집행의 상징이었다. 다만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당시 계곡에서 영업하던 상인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 시대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98% 올라 전월(0.65%)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차분하게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 후보에 대한 ‘강성’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 후보는 이같은 행보를 통해 ‘유능한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지자들에게 “일을 잘 할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준 셈이다.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에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은 지지체장 시절 보여준 행정력으로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수소전기차 5만대 시대 눈앞 열악한 충전소 인프라는 여전

현대차 넥쏘 신차 출시로 보급 속도
원활한 운행 위해 충전소 확대 시급
세제혜택·규제완화 등 지원 절실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FCEV)의 국내 보급 대수가 4만대에 육박하면서 도심 충전소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 대신 물만 나오는 친환경차로 현재 전 세계에서 양산형 승용 수소전기차를 출시한 브랜드는 한국(현대자동차)과 일본(도요타, 혼다)뿐이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빠진 상태에서 수소 전기차의 수요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만 9216대를 기록했다. 올해 1만 3000여 대의 수소전기차에 정부 구매 보조금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연내 누적 5만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수소전기차는 지난 2018년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가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 형성됐다. 이후 누적 보급 대수는 2020년 1만 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3만여 대에 도달했다. 올해에는 넥쏘 후속 모델인 ‘디 올 뉴 넥쏘’ 출시와 함께 환경부가 수소전기 승용차(1만1000여 대), 버스(2000여 대)에 총 7218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확정함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은 5만대를 넘

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수소 인프라 문제는 수소전기차 보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전사업자의 도심 부지 확보나 경영난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총 218개소다. 수소산업 전문가들은 “일부 도심 충전소는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내연기관 차량처럼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설치에 제약이 적은 ‘고압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개발하면서 도심 수소충전소 확충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전사업자의 도심 내 부지 확보와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수소 유통망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부처·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수소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은 없다. /양성운 기자 ysw@

삼바, 수주액 3조 육박... 연매출 5조 ‘순항’

유럽서 2조 규모 초대형 수주 이어
美 제약사와 7373억 CMO 계약
수요 대응위해 5공장 가동 본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두 건의 수주 계약으로 연간 수주액 3조원에 성큼 다가서며 지난해 수주 실적의 절반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두 번째 수주 성공으로 미국 소재 제약사와 7373억원 수준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CMO)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지난해 총 수주액 5조4035억원의 약 14%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경영상 비밀유

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신규 계약을 포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 총 2조812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올리며 지난해 수주액의 52%를 채웠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747억원의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주 성과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계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주액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이기도 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고성장에 힘입어 올해 연간 매출 5조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분기에만 연결기준 1조2983

억원의 매출과, 486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120% 증가했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기업 성장세를 유지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우선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활발히 한다. 특히 이달부터 5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제2바이오캠퍼스 시대를 열었고, 오는 2032년까지 5공장도 동일한 규모의 공장을 3개 추가할 계획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착공을 검토하는 등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배현진 “무용진흥법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 할 것”... 공청회 열려
▲홍준표 “증범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게 상식에 맞는다”
/사진 뉴스1

▲국민의힘, ‘성장과통합’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 “이재명 암살단 모집·살해예고 글에 법적 조치 예정”

▲민주 ‘기재부 개편’ 토론회... “예산·집행 기능 쪼개야”
▲국힘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멈추고 반성·책임 보여야”